

# 영암 중학생들, 일본 왕인박사 묘 등 역사 현장 탐방

### 군, 운동주·정지용 시비 등 3박4일 체험학습 운영 3회 걸쳐 3학년 384명 대상...탐방비용 전액 지원

영암군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 육성을 위해 중학교들을 대상으로 일본 역사·문화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14일 영암군에 따르면 영암군미래교육재단은 오는 19일부터 6월 12일까지 지역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체험학습을 운영한다. 지역 중학교 11개교와 특수학교 2개교 3학년 학생 384명이며, 일본 오사카·교토 지역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왕인박사묘와 도시사대학교 운동주·정지용 시비 등 역사 현장을 탐방하고, 일본 현지 대학생과 함께하는 스그룹 자율 탐방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재단은 사전 연계교육을 통해 방문지에 대한 역사·문화적 이해를 높이고 체험학습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현지 대학생과 함께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해 학생들의 소통 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키우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학생들이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내실 있는 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 중학생 해외·문화 탐방은 영암군 지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지난 2024년까지는 영암교육지원청이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영암군미래교육재단이 맡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학생 선발 방식이 아닌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비용 전액을 지원해 균등한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해, 해외 견문을 넓히고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영암군은 인재 육성을 위해 중학교들을 대상으로 일본 역사·문화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해 해외역사문화 체험학습 모습. 사진제공=영암군청

## 신안 '전남권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사업' 선정

### 230억 규모 김 산업 거점 "가공·유통 체계 확대 조성"



전남권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조감도. 사진제공=신안군청

신안군은 최근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5년 전남권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신안군은 총사업비 80억원 규모의 FPC 건립에 이어, 추가로 150억원 규모의 마른김 가공공장 건립사업까지 확보하며 총 230억원 규모의 대형 김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게 됐다. FPC는 신안군 압해읍 일원에 들어

서며, 마른김 가공공장과 냉동 보관시설 등을 갖춘 산지 유통 거점으로 구축된다. 보조사업자로 참여하는 감로씨푸드 영여조합법인도 최근 2년간 4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중 미국 등 해외 수출이 401억원에 달하는 수출 강소기업이다. USDA-NOP, SQF 등 국제 식품 안전 인증도 보유하고 있다. 신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물김의

안정적 공급과 가공·저장·유통·수출을 연계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물김 가격 하락과 산지 폐기 문제를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가공 기반을 마련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신안군 관계자는 "FPC 사업과 마른김 가공공장 사업의 연속 선정으로 신안 김 산업의 성장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며 "산지 중심의 가공·유통 체계를 확대해 어업인과 가공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김 산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향후 단계적 시설 확충과 유통망 연계를 통해 이 시설을 전남권 김 산업의 핵심 산지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신안=이준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서 323억 수출 협약 14개국 바이어·국내 수출 기업 52개사 참여

'2026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수출 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캄보디아, 러시아, 일본 등 바이어와 5건, 약 122억원 규모의 수산물 수출을 성사한 성과를 거뒀다. 해의 바이어들은 완도 수산물에 큰 관심을 보였다. 군은 aT와 함께 수출상담회 기간 동안 정책 자금 지원 상담, 수산 식품 수출 지원, 광주세관 연계 수출 컨설팅 부스도 운영하며 업체들의 수출길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상담회를 통해 체결된 업무 협약은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 해남, 하절기 감염병 비상방역체계 가동

해남군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증가에 대비해 오는 9월까지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장관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하절기에는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집단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해남군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집단환자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발생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감염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같은 음식을 섭취한 후 설사 등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 강진, 가족이 함께하는 '비비고 데이' 호응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강진군 어린이·사회복지시설관리지원센터가 최근 어린이급식소 이용 학부모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비비고(Visit, Visual, Go) 데이 열린 센터의 날'을 통해 센터 사업 소개와 위생·안전·영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 부스 형식으로, 어린이 대상으로 컴퓨터와 저염·저당 식생활 교

육을 실시해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편맛 미각 테스트를 실시해 가정내 식습관이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체험할 수 있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부모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강진=이진록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기간 동안 열린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현장. 사진제공=완도군청

## 생애 마지막 캐네이션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방에서 맞는 어버이날은  
어르신에겐 그저 평소보다 좀 더 시린 날일 뿐입니다.

월 2만 원으로 '어버이날 선물' 전하기

QR 인식

ARS  
무기명 후원

060-708-1004

(1만원)

후원문의 1811-1004